

5급 공채 유사유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
(Hard Mode)

1	2	3	4
㉠	㉢	㉡	㉠

문 1. 정답 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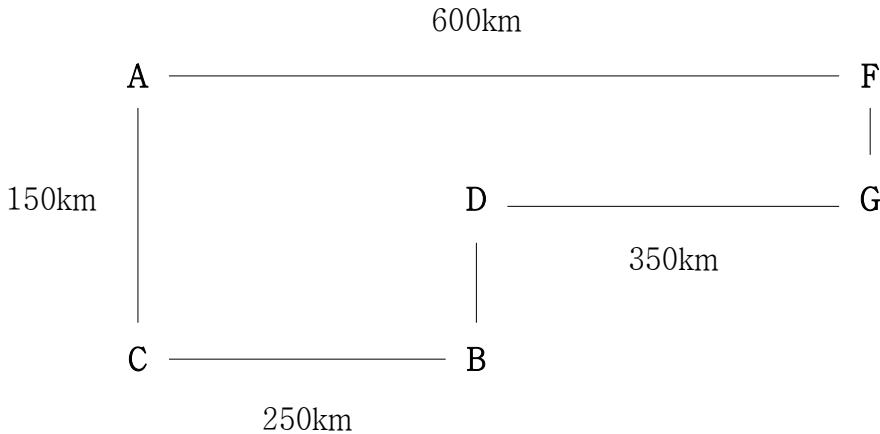
해설

- ① : (×)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. 상소는 패소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다. <상황>에서 乙은 승소했으므로 상소가 불가하다.
- ② : (×) 세 번째 문단 두 번째,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. 상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. <상황>에서 판결문은 甲에게 2016년 11월 10일 송달되었다. 따라서 甲은 11월 28일이 아닌 11월 24일까지 상소를 해야 한다. 또한 이 기간 내에 甲이 상소하지 않으면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11월 24일에 판결은 확정된다.
- ③ : (×)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.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후 상소를 취하하면 상소기간 만료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. 따라서 甲이 2016년 11월 11일 상소한 후 2016년 12월 1일 상소를 취하하였다면, 취하한 때가 아니라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11월 24일에 판결이 확정된다.
- ④ : (○)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. 하급심 판결이라도 선고 전에 당사자들이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, 판결은 선고 시에 확정된다. 따라서 甲과 乙이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2016년 10월 25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, 판결은 선고 시인 2016년 11월 1일 확정된다.
- ⑤ : (×) 네 번째 문단이 근거이다. 상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, 제출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다. 따라서 甲이 2016년 11월 21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, 판결은 2016년 11월 21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.

문 2. 정답 ③

해설

- (1) <조건 3>에 의해 A의 정남쪽 150km 지점에는 C가 위치해 있다.
- (2) <조건 2>에 의해 C의 정동쪽 250km 지점에는 B가 위치해 있다.
- (3) <조건 4>에 의해 B의 정북쪽에는 D가 위치해 있으며, 이 거리는 150km 미만이다.
- (4) <조건 6>에 의해 D의 정동쪽 350km 지점에는 G가 위치해 있고, A의 정동쪽에는 F가 위치해 있다.
- (5) <조건 2>에서 E, F, G는 정남북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므로 F는 A의 정동쪽 600km 지점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.
- (6)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도시들의 위치를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.



- (7) <조건 5>에서 E와 F 간의 거리는 C와 D 간의 직선거리와 같다고 하였다. C와 D 간의 거리는 직각삼각형 CDB의 빗변의 길이이므로 밑변인 250km보다 길다. 따라서 E는 F의 정북쪽 혹은 정남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, 그 거리는 250km를 초과하여야 한다.
- (8) 이때 E가 F의 정북쪽 혹은 정남쪽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A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는 E이다.

문 3. 정답 ②

해설

(1)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~ 네 번째 문장에 따라 ‘5쿠말 = 젓소 10마리 = 은 20온스’가 된다.

(2) <상황>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상 황	해당 배상금	명예가격
주교 살해	10쿠말	5쿠말
영주 상해	2쿠말	5쿠말
영주 아내 상해	은 1온스	5쿠말 (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인 영주의 명예를 훼손)
부유한 농민 2명 살해 (각각 하인 10명씩 거느리고 있음)	10쿠말 × 2명 = 20쿠말	(젓소 2.5마리 + 젓소 0.5마리 × 10명) × 2명 = 젓소 15마리

(3) 위의 수치들을 모두 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.

상 황	해당 배상금	명예가격
주교 살해	은 40온스	은 20온스
영주 상해	은 8온스	은 20온스
영주 아내 상해	은 1온스	은 20온스
부유한 농민 2명 살해 (각각 하인 10명씩 거느리고 있음)	은 80온스	은 30온스
합 계	은 129온스	은 90온스

(4) 따라서 은으로 환산한 A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은 은 219온스이다.

[참 고]

(1)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~ 네 번째 문장에 따라 5쿠말과 젓소 10마리, 은 20온스가 각각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.

(2)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배상액과 명예가격을 구분하여야 한다.

(3) <상황>에서 영주의 아내의 다리를 부러뜨린 행위는 영주의 보호를 받는 영주의 아내를 다치게 한 것이므로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영주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다.

[운영 전략]

<상황>에서 4가지 사건이 등장하고, 각 사건마다 살인 또는 상해에 대한 배상금과 모욕에 대한 배상금인 ‘명예가격’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정보가 매우 많다. 또한, 쿠말, 젓소, 은과 같은 여러 가지 낯선 단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. 따라서 2015년도 상황판단 기출 문제 중 반드시 넘겨야 하는 대표적인 문제로, 실전에서 처음부터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40번 문제까지 다 접한 이후에 남은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.

문 4. 정답 ④

해설

(1)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.

- i) 제1항 제1호 나목 : 甲의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은 2018. 1. 15.이고, 신고일은 2018. 4. 2.이므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 해태기간은 1개월 이하이다. 甲의 실제 거래가격은 5억 원으로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는 100만 원이다.
- ii) 제2항 제1호 나목 : 甲은 실제 5억 원에 거래하였지만 3억 원으로 거짓 신고하였는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(2억 원)이 실제 거래가격(5억 원)의 40%로 20% 이상이므로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이다. <상황 1>에 따르면, 매수인의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1이다. 따라서 과태료는 1,500만 원($= 5\text{억 원} \times 0.01 \times 3$)이다.

(2)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.

- i) 乙의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은 2018. 2. 1.이고, 신고일은 2018. 2. 5.로 이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.
- ii) 제2항 제2호 나목 : 乙은 입주권을 2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거래가격을 1억 원으로 거짓 신고하였는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(1억 원)이 실제 거래가격(2억 원)의 50%로 20% 이상이므로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4이다. 따라서 과태료는 800만 원($= 2\text{억 원} \times 0.04$)이다.

(3)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는 병과되므로 甲과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은 2,400만 원($= 100\text{만 원} + 1,500\text{만 원} + 800\text{만 원}$)이다.